



# 15 시에서 역설의 표현 방법을 활용할 때의 효과로 보기 어려운 것은?

- ① 독자의 주의를 끌 수 있다.
- ② 단조롭지 않고 참신한 느낌을 준다.
- ③ 전달하려는 내용을 직설적으로 드러낸다.
- ④ 새로운 느낌을 주는 표현을 만들 수 있다.
- ⑤ 작가의 주제나 의도를 효과적으로 강조할 수 있다.

[16-25] 다음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강원도 정선군에 한 양반이 살고 있었다. 이 양반은 아꼈고 글 읽기를 좋아하여, 군수가 새로 부임할 때마다 몸소 그 집을 찾아가서 인사를 드렸다. 그런데 이 양반은 가난하여 해마다 관청의 환곡(還穀)을 꾸어다 먹었다. 그 빚을 갚지 못하고 해마다 쌓여서 천 섬에 이르렀다. / 강원도 감사가 정선 고을을 돌아보다가 환곡 장부를 조사하고 크게 노하였다.

“아편 놀이 양반이 나라의 곡식을 축냈단 말이냐?”

감사는 그 양반을 잡아 가두려고 명했다. 군수는 그 양반이 가난해서 빚을 갚지 못하는 것을 딱하게 여겨 차마 가두지는 못하였다. 그러나 군수도 양반의 빚을 해결할 방법이 없었다. / 양반은 빚을 갚을 길이 없어서 밤낮으로 울기만 하였다. 그의 아내가 양반을 물어볼었다.

“양반은 평소에도 글 읽기만 좋아하더니, 환곡을 갚는 데는 전혀 도움이 안 되는구려. 쫓쫓, 양반이구나……, 한 편이치도 안 되는 놀이 양반!”

(나) 그때 그 마을에 사는 부자가 그 양반의 소문을 듣고 가족과 의논하였다.

“양반은 아무리 가난해도 늘 귀한 대접을 받고, 우리는 아무리 잘 살아도 항상 천한 대접을 받는다. 양반이 아니므로 말이 있어도 믿을 터지 못한다. 또한 양반과 보면 굴심거리며 체대로 숭수리로 내지 못하고, 뜰에 데리고 갈해야 하고, 코를 땅에 박고 무릎으로 기어가야 한다. 우리 신세가 가엾지 않느냐? 지금 저 양반이 환곡을 갚지 못해서 아주 난처하다고 한다. 그 형편으로는 도저히 양반의 신분을 지키지 못할 것이다. 그러니 우리가 그의 양반을 시켜서 양반 신분으로 살아 보자.”

부자는 곧 양반을 찾아가 환곡을 대신 갚아 주겠다고 청하였다. 양반은 크게 기뻐하며 승낙하였다. 부자는 즉시 관청에 가서, 양반 대신 환곡을 갚았다.

(다) 군수는 양반이 천 섬이나 되는 환곡을 모두 갚자 몹시 놀랐다. 군수는 환곡을 갚게 된 사정을 알아보려고 양반을 찾아갔다. 그런데

뜻밖에 양반이 병가지를 장방이를 입고, 길에 이르러 소인(小人), 소인! 하며 자신을 낮추지 않는가? 그뿐만 아니라 양반은 감히 군수를 쳐다보지도 못하였다. 군수가 깜짝 놀라 양반을 불렀고 물었다. “그대는 어째서 이런 것을 하시오?”

양반은 더욱 벌벌 떨면서 머리를 땅에 조여리며 아뢰었다.

“황송하옵니다. 소인이 저 자신을 욕되게 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환곡을 갚느라고 이미 양반을 팔았으니, 이제는 이 마을의 부자가 양반입니다. 소인이 이제 다시 양반 행세를 하겠습니까?”

군수는 감탄해서 말하였다.

“군사로구나, 부자여! 양반이로구나. 부자여! 부자여! 먼저도 재물을 아끼지 않았으니 의로운 일이요, 남의 어려움을 도와주니 아진 일이요, 천한 것을 싫어하고 귀한 것을 바라니 지혜로운 일이다. 이와 달리 진짜 양반이로구나! 그러나 양반을 사고팔면서 중서를 작성하지 않았으니, 소승(僞敍)의 표류자가 될 수 있다. 그러나 고을 사람들을 불러 모아 중인으로 세우고, 중서를 만들어서 양반을 사고판 일을 모두에게 알리도록 하지. 나도 당연히 중서에 서명을 하겠다.”

(라) 배고픔과 추위를 참고 견디며, 가난 타령은 아예 하지 말아야 한다. 어금니를 딱딱 마치고 뒤뚱수를 북북 두드리며, 침을 입 안에 머금고 기쁘게 양척질하듯이 삼켜야 한다. 소꿉자락으로 털고자를 뒤어 만지를 벌여내어, 모자에 물결무늬가 뚜렷하게 해야 한다. 세수할 때는 주머니로 비비지 말고, 입 냄새가 나지 않게 이를 잘 닦아야 한다. 소리를 잔게 벌어서 중을 부르며, 신발을 땅에 끌 듯이 느릿느릿 걸음을 옮겨야 한다. 《고문진보(古文眞寶)》, 《서서품취(書書品 취)》를 깨알같이 매끼 쓰되, 한 줄에 백 자씩 써야 한다. 손에 돈을 쥐지 말고, 쌀값을 묻지 말고, 더위도 버선을 벗지 말고, 맨상투로 방상에 앉지 말고, 밤보다 국을 먼저 마지 말고, 물을 후후루 마시지 말고, 젓가락으로 방이를 찌지 말고, 생파를 마지 말고, 마걸리를 들이켜 다음 수염을 쭉 빨지 말고, 담배를 피울 때는 불이 움푹 패도록 빨지 말아야 한다.

(마) 이에 관청의 하인(下人)이 타락 도장을 찍는데, 그 소리는 마치 북을 치는 것 같고, 짝이 놓은 모양은 하늘에 별이 펼쳐진 것 같았다. 호장(戶長)이 중서를 다 읽고 나자, 부자는 아까구가 없어서 한 창이나 멍하니 있다가 말하였다.

“양반이라는 게 겨우 요것뿐입니까? 저는 양반이 신선 같다고 들었는데, 정말 이렇다면 너무 재미가 없는걸요. 원하옵건대 제게 이익이 되도록, 문서를 고쳐 주십시오.”

그때로서 문서를 다시 작성하였다.

(바) 하늘이 백성을 낳을 때 빗으로 구분하였다. 네 가지 백성 가운데 가장 높은 것이 신비이니, 이것이 곧 양반이다. 양반의 의미는 마대하다. 농사도 짓지 않고 정사도 하지 않는다. 글만 대충 읽어도 크게 되면 문과(文科)에 급제하고, 작아도 진사(進士)가 된다.

문과의 종제(宗制)는 골짜기 하지만, 여기에 온갖 물건이 갖추어져 있으니, 그야말로 돈 자루이다. 서론(序論)이 전사가 되어 첫 벼슬을 얻더라도, 오히려 이름난 음반(繡班)이 되어 높은 벼슬자리에 오를 수 있다. 언제나 종들이 양산을 받쳐 주므로 귀함이 희어지고, 청령 풀만 땅기면 종들이 ‘예!’ 하므로 땀살이 차진다. 방에서는 귀객이로 치경한 기생과 노닥거리고, 뜰에서는 남아들은 곡식으로 파(鵲)를 기른다.

벼슬을 아니 하고 시골에 묻혀 살더라도 모든 일을 제멋대로 할 수 있다. 강제로 이웃의 소를 끌어도 먼저 자기 땅을 갈고, 마을의 일꾼을 잡아도 먼저 자기 논이 김을 맨들, 누가 감히 나에게 대들겠느냐?

(사) 부자는 중서 내용을 듣고 있다가 혀를 내둘렀다. “그런데시오, 그만두시오. 참으로 맹랑하구먼! 나를 도둑놈으로 만들 작정입니까?”

부자는 머리를 흔들면서 떠나 버렸다. 그리고는 죽을 때까지 다시는 양반이 되고 싶다는 말을 입에 올리지 않았다.

글의 세부 내용을 이해하기

## 16 이 글의 내용과 일치하는 것은?

- ① 양반은 경제적으로 곤궁한 처지에 놓여 있었다. (가)
- ② 양반은 부자에게 신분을 판 것을 후회하고 있다. X
- ③ 양반의 아내는 양반보다 부자를 믿고 따르고 있다. X
- ④ 군수는 양반을 온건히 무시하는 태도를 취하고 있다. X
- ⑤ 부자는 자신이 속한 계층에 대해 거부감을 가지고 있다. X

인물의 의도 파악하기

## 17 군수가 양반 때에 중서를 작성한 이유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자신도 양반 신분이 되고 싶었기 때문에
- ② 부자가 환곡을 갚아준 의도를 확인하기 위해
- ③ 다른 양반들에게 올바른 가르침을 주기 위해
- ④ 신분 매매를 둘러싼 본질을 신속히 해결하기 위해
- ⑤ 양반과 부자가 신분을 사고판 것을 널리 알리기 위해 (다)의 의도 파악하기

인물의 행동 파악하기

## 18 부자에 대한 설명으로 알맞은 것은?

- ① 양반 계층의 권위를 부정했다.
- ② 군수 앞에서 자신을 낮추지 않았다.
- ③ 경제력을 바탕으로 신분 상승을 꾀했다. (가)
- ④ 글 읽기를 좋아하여 마을에서 존경을 받았다.
- ⑤ 군수의 부탁으로 양반 대신 환곡을 갚아 주었다.

글의 시조제 배경 파악하기

## 19 이 글을 통해 알 수 있는 당대 사회의 모습이 아닌 것은?

- ① 임금이 권위가 약해졌다.
- ② 신분을 사교할 수 있었다. (가)의 의도 파악하기
- ③ 사농공상의 구분이 있었다.
- ④ 경제적으로 몰락하는 양반이 생겼다.
- ⑤ 평민 계층도 부를 축적할 수 있었다.

글의 세부 내용을 이해하기

## 20 이 글의 서술 방식으로 가장 알맞은 것은?

- ① 주인공이 자신의 이야기를 전개한다. (인물 중심 서술)
- ② 서술자의 평가가 담긴 서술이 나타난다. (가)의 의도 파악하기
- ③ 하나의 이야기 속에 다른 이야기를 포함한다.
- ④ 작품 밖 서술자가 사건을 객관적으로 전달한다. (인물 중심 서술)
- ⑤ 작품 속 인물이 다른 인물의 심리를 직접 제시한다. (인물)

글의 표현 방법의 효과 파악하기

## 21 이 글에 나타난 표현 방법과 그 효과를 <주어진>에 맞게 서술하시오. [5점]

표현 방법	효과
① 조인	• 양반을 비판하기 위해 활용한 주된 표현 방식이 무엇인지 밝힐 것
• 표현 방법의 효과를 두 가지 서술할 것	• 효과

글의 내용 파악하기

## (가)에 대한 설명으로 알맞은 것은?

- ① 실존 인물이 등장하여 사실성을 높이고 있다. (가)의 의도 파악하기
- ② 조선 시대의 계층 갈등이 극명하게 드러나고 있다.
- ③ 신라의 미담을 통해 풍자의 효과를 극대화하고 있다.
- ④ 인물은 우스꽝스럽게 희화화하여 웃음을 유발하고 있다.
- ⑤ 비유와 사투리의 구사를 통해 생생한 느낌을 주고 있다.

글의 세부 내용을 이해하기

## 23 (라)에서 강조하는 양반의 태도가 아닌 것은?

- ① 실용적인 학문을 공부해야 한다.
- ② 식사할 때 행동을 조심해야 한다.
- ③ 예의범절을 엄격하게 지켜야 한다.
- ④ 물질적인 것에 매이지 않아야 한다.
- ⑤ 체면을 지키고 글 읽기에 힘써야 한다.

24 비에 나타난 양반의 모습이 아닌 것은?

- ① 벼슬자리에 올라 특권을 누리는 모습
- ② 다른 계층에 평등을 부리고 괴롭히는 모습
- ③ 할 일 없이 노닥거리며 무위도덕하는 모습
- ④ 자연 속에서 풍류를 즐기며 도를 닦는 모습
- ⑤ 신분을 이용해 부당한 권리를 남용하는 모습

25 옳이 이유를 <조건>에 맞게 서술하십시오. [3점]

조건

- (가)를 바탕으로 본자의 심리와 관련지어 쓸 것
- 완결된 한 문장으로 서술할 것

126~300 다음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가) (가)를 바탕으로 본자의 심리와 관련지어 쓸 것

가만 비가 추적추적 내리는 날이었다.

이날이아말도 동소문 안에서 인텔리곤 노릇을 하는 김 참지에게는 오래전에도 다친 운수 좋은 날이었다. 문 안에서기도 문밖은 아니지만 들어간다는 앞집 머슴님을 천천히까지 모셔다드린 것을 비롯으로 행여나 손님이 있을까 하고 정류장에서 아청아청하며 내리는 사람 하나하나에게 거의 비는 듯한 눈길을 보내고 있다가 마침내 교원인 듯한 양복객을 동광학교(東光學校)까지 태워다 주기로 되었다. / 첫 번째에 삼십 전, 둘째 번에 오십 전 — 아침 커피타임에 그리 좋지 않은 일이었다. 그야말로 재수가 음 붙어서 근 열흘 동안 돈 구경도 못 한 김 참지는 (가)를 전파한 백동환 서 폰, 또는 다섯 분이 활짝하고 손바닥에 떨어질 제 거의 눈물을 흘릴 만큼 기뻐했다. 더구나 이날 이마에 이 팔십 전이란 돈이 그에게 얼마나 유용한지 몰랐다. 켈컬한 목에 모두 현잔도 적실 수 있거나와 그보다도 않는 아내에게 설명할 한 그릇도 사다 줄 수 있음이다.

(나) 그러나 그의 행운은 그걸로 그치지 않았다. 맑고 빛물이 섞여 흐르는 목덜미를 기를 주머니가 다 된 광복 수건으로 닦으며 그 학교 문을 들어 나를 때였다. 뒤에서 “인려가” 하고 부르는 소리가 난다. 자기를 불러 멈춘 사람이 그 학교 학생인 줄 김 참지는 한 번 보고 전라할 수 있었다. 그 학생은 다짜고짜로, “남대문 정각까지 일어나요?”

라고 물었다. 이마도 그 학교 기숙사에 있는 이도 동기 방학을 이용하여 귀향하려 함이라. 오늘 기기로 작정은 하였지만 비는 오고 잠은 있고 해서 어쩔줄 몰르다가 마침 김 참지를 보고 뛰어나왔

음이었다. 그렇지 않으면 왜 구두를 제 신지도 못해서 쥔칠 문고 비록 고구려 양복일망정 노복이로 비를 맞으며 김 참지를 뒤쫓아 나왔으랴

“남대문 정각까지 멈춤입니까?”

하고 김 참지는 잠깐 주저하였다. 그는 이 우중(雨中)에 우장(雨裝)도 없이 그 먼 곳을 출발하려고 거기서 쉬었음일까? 처음 젖, 둘째 것으로 그만 만족하였음일까? 아니다, 결코 아니다. 이상하게도 피리를 맞물고 머뭇하는 이 형은 앞에 조금 겁이 났음이다. 그리고 짐을 나을 제 아내의 부탁이 마음이 쟁기였다 — 앞집 마거한테서 부르러 왔을 제 병인은 그 때만 남은 얼굴에 유일의 생을 같은, 유령리 크고 음푹한 눈에 애절하는 빛을 띠며,

“오늘은 나가지 마세요. 개발 덕분에 집에 불이 있어요. 내가 이렇게 아픈데……”

라고 모깃소리같이 중얼거리고 숨을 거트렁거르짖었다.

(다) 그 학생을 태우고 나선 김 참지의 다리는 이상하게 기뻐하였다. 앞을 걸을 한다느니보다 거의 나는 듯하였다. 비워도 어떻게 속히 도는지 구름다느니보다 마치 앞을 질쳐 나가는 스케이트 모양으로 미끄러져 가는 듯하였다. 언 땅에 비가 내려 미끄럽기도 하였지만, 이윽고 끄는 이의 다리는 무거워졌다. 자기 집 가까이 다다른 까닭이다. 새삼스러운 엄라가 그의 가슴을 눌렀다.

“오늘은 나가지 마세요. 내가 이렇게 아픈데!”

이런 말이 엉덩 그의 귀에 울렸다. 그리고 병자의 움츠러들고 있는 이 원망하는 듯이 자기를 노리는 듯하였다. 그러자 엉덩하고 우는 개롱이의 곡성을 들은 듯했다. 팔팔팔팔하고 숨 모으는 소리도 나는 듯했다……

“왜 이러우? 기차 놓겼거든!”

하고 란 이의 초조한 부르짖음이 간신히 그의 귀에 들어왔다. 언뜻 깨달으니 김 참지는 인력거 채를 전 채 길 한복판에 엉겨주춤 멈춰 있지 않았나.

“왜, 예?”

하고 김 참지는 또다시 얼음결하였다. 집이 차차 멀어 갈수록 김 참지의 걸음에는 다시금 신이 나기 시작하였다. 다리를 제게 돌려야만 설 새 없이 자기의 머리에 떠오르는 모든 근심과 걱정을 잊을 듯이.

(라) 그럴 즈음에 마침 길가 선술집에서 그의 친구 차삼이가 나온다. 그의 우글우글 살현 얼굴에 주홍이 돌든 듯, 온 턱과 뺨을 시커멓게 구레나룻이 덮였기는, 노르텔한 얼굴이 바짝 말라서 여기저기 고랑이 파이고 수염도 있대야 턱 밑에만 마치 술잎 송이를 거꾸로 붙여 놓은 듯한 김 참지의 종재하고는 기이한 대상을 짓고 있었다.

“어보게, 김 참지, 자네 문안 들어있다 오는 모양일세 그려. 돈 많이 벌었을까? 한잔 빨리!”

동쪽보는 말만개이를 보던 밑에 부르짖었다. 그 목소리는 문턱과 편편으로 연하고 씩씩하였다. 김 참지는 이 친구를 만난 게 어떻게 반겨운지 몰랐다. 자기를 살려 준 은인이나 무엇이었이 고맙기도 하였다.

(다) “어보게, 돈 벌었겠네. 왜 돈을 막 끼었나?”

이런 말을 하며 차삼은 일반 돈을 줍는다. 김 참지는 취한 중에도 돈의 가치를 살펴라는 듯이 눈을 크게 떴지 땅을 내려 보다가 불시에 제 하는 것이 너무 더럽다는 듯이 고개를 소스라치자 더욱 성을 내며,

“봐라, 봐! 이 더러운 놈들이 내가 돈이 없다. 다리 백다구를 끼어 놓을 놈들 같으니!” / 하고 차삼의 주위 주는 돈을 받아,

“이 원수갸! 이 욕사를 할 돈!”

하면서 팔매질을 친다. 벽에 맞아 떨어진 돈은 다시 술 굽이는 양판에 떨어지며 장당한 매를 맞는다는 듯이 쟁하고 울었다.

(사) 김 참지는 취중에도 [절원]을 사 가지고 집에 다다랐다. 집이라 해도 물론, 씨집이요. 또 집 전체를 세 든 게 아니라 안과 뚝 떨어진 행랑창 한 칸을 빌려 든 것인데 몸을 길어 대고 한 달에 일 원씩 내는 터이다. 만일 김 참지가 주기를 따지 않았더라면 한 발을 대문 안에 들여놓았을 제 그곳을 지배하는 무시무시한 정력 — 폭풍우가 치나간 뒤의 바다 같은 정력에 다리가 떨렸으리라. 풍류자라는 기집 소리로도 들을 수 없다. 그르렁거리는 솜소리와 들을 수 없다. 다만 이 (가)를 읽을 참목을 깨뜨리는 — 깨뜨린다는보다 한층 더 참목을 깊게 하고 불길하게 하는 뻥뻥 하는 그윽한 소리, 어딘개의 것 빼는 소리가 날 뿐이다. 만일 창가에 에민한 이 같은 그 뻥뻥 소리는 뿔 따름이요, 골골골골과 쫓 범어는 소리가 없으니, 빈 것을 뻥뻥하는 것도 전작하는지 모르리라.

죽은 김 참지도 이 불길한 참목을 잠작했는지도 모른다. 그렇게 않으면 때문에 돌아서자마자 전에 없이,

“이런! 남편이 돌아오는데 나와 보지도 안 해, 이런!”

이라고 고향을 천 개 수상한다.

(가) “이 눈썹 이 눈썹 왜 나를 바라보지 못하고 창랑 보느냐?” 하는 말끝엔 목이 매었다. 그러자 (가) 산 사람의 눈에서 떨어진 땀방울 같은 눈물이 죽은 이의 뺨뺨한 얼굴을 아롱아롱 적신다. 문득 김 참지는 미친 듯이 제 얼굴을 죽은 이의 얼굴에 한해 비비대며 중얼거렸다.

“살림장을 사다 놓았는데 왜 머지를 못하니, 왜 머지를 못하니? 파상하게도 오늘은 운수가 좋나니만……”

27 이 글을 읽은 후의 반응으로 알맞지 않은 것은?

- ① 김 참지는 아픈 아내에게 약은커녕 밥도 제대로 먹이지 못할 정도로 가난하군.
- ② 김 참지는 빚에서 여러 손님을 태워다 주고 여는 날보다 많은 돈을 벌게 되군.
- ③ 김 참지는 아내의 죽음을 마주하기가 두려운 상황에서 차상을 만나고 반가워하군.
- ④ 김 참지는 집에서 멀어져서 마음이 초조해지고 집에 가까이 가면 걸음이 신이 나군.
- ⑤ 김 참지는 계속되는 행운에 집이 나고 아픈 아내의 모습이 자꾸 떠올라서 관동하군.

28 이 글에서 [절원]의 역할로 적절한 것은? (정답 2개)

- ① 시대적 배경을 드러낸다.
- ② [절원]의 비극성을 심화시킨다.
- ③ 아내에 대한 사랑을 보여준다.
- ④ 시련을 극복할 의지를 상징한다.
- ⑤ 불행의 결정적 원인을 제공한다.

29 이 글의 제목 ‘운수좋은 날’에 사용된 표현 방법과 그 효과를 <조건>에 맞게 서술하십시오. [5점]

조건

- 이 글의 내용을 바탕으로 제목에 사용된 표현 방법이 무엇인지 밝힐 것
- 표현의 효과를 서술할 것

비극적(悲劇的) 운수좋은 날 (반대-반대)

30 ~ 300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가) 작품 전체에 음울한 분위기를 형성한다.
- ② (가) 시대적 배경을 알 수 있는 소재이다.
- ③ (가) 김 참지의 탐욕스러운 성격을 드러낸다.
- ④ (가) 아내의 죽음을 의미한다.
- ⑤ (가) 김 참지의 애도한 심정이 나타난다.